

온라인 수업 플랫폼 연수

도교육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수업교사 대상 '교실온넷' 활용법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4일 전주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플랫폼인 '교실온넷' 교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2023학년도 1학기 학교 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강을 앞두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수업교사를 대상으로 '교실온넷' 활용법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학교 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수업교사 11명이 참석, '교실온넷' 플랫폼에서 수업 개설·출결 관리·화상수업·수업과제 제시 방법 등 온라인 수업 운영 관리

에 필요한 기능들을 실습과 함께 익히는 활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동교육과정 수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편성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거주 수업과 토론 등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1학기에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31개교 88개 강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16개교 27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실시간·쌍방향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실온넷'과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내실화를 통해 교과 학습 부담을 낮추고 학습의 질을 높여 줄 것"이라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여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한옥마을을 학생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3~24일 이틀 간 전주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틀째인 24일 오후 시도교육감들이 한옥마을을 찾아 기전과 승경대 등을 둘러보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전주한옥마을을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임실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오후 4시 2층 대회의실에서 2023 임실학생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주주의의 배움터 학교를 다시 세우다

2023 임실학생의회 출범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남궁세창)은 지난 24일 오후 4시 2층 대회의실에서 2023 임실학생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1월부터 준비모임을 갖고 출범을 준비해 온 2023 임실학생의회는 학교 내 학생 자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학생 중심 교육정책을 발굴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출범식은 1부 당선증 교부 에 이어 의정단 선출과 분과위원회 조직 등 원구성 2부로 꾸며졌다. 특히 지역 내 학생 자치활동 강화에 오랫동안 힘써 온 임실군의회 소속 김정흠 의원이 특강 강사로 나서 참여 민주주의의 리더로 성장한 학생의원들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2023 임실학생의회는 관내 중고

등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된 의원 12명과 학생참여민주주의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자원형 의원 7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4년 2월 말까지로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와 지역 내 교육 현안에 대한 고민을 통한 정책 제안에 나선다. 학교 안에서는 '자치탐험대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회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임실군의회, 전북학생의회와 협력하게 된다. 남궁세창 교육장은 "교육 입은 유권자가 등장한 시대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참여 역량 강화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학생의회를 통해 절저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임실=진홍영기자



도교육청, 중견 공무원 대상 '4050세대 연금과 건강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4일 전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에서 중견 지방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4050세대 연금과 건강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공직사회 내 지방공무원의 경제적 지위와 건강한 삶을 보장해 지방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더불어 조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세대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노동 연수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운영된 '2030세대 지방공무원 노동인권 연수'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내용은 △남마다 새로운 전북 교육 △연금제도 개요 △부조·퇴직 급여 및 후생 복지 △윤리적 가치의 갈등 청렴 △활쏘기·암벽등반 체험 등이다. 이날 연수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안전주 과정이 연금 관련 사례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연금 운영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 또 성공개발연구소 문양근 대표가 재미있는 미술을 통해 청렴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공과 암벽타기 등 수련 체험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심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도 가졌다. /정은성 기자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 안내

1071명이 지원... 내달 8일 전주평화중 등 4곳에서 치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를 누리집(www.jbc.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8일 전주평화중학교·전주이중중학교·송천중고등학교·전주교도소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초졸 90명, 중졸 229명, 고졸 752명 등 총 1,071명이 지원했다. 해당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을 준비하고,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과, 필요시 개인 도시락 등을 준비하면 된다. 코로나9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시험실별 응시인원을 24명으로 배치하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

한 별도 시험장(실)을 운영한다. 또 시험장 사전·사후 방역소독 실시, 시험실 입실 시 모든 응시자의 발열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치통(격리) 중인 응시자는 반드시 '별도시험장(실) 응시신청서'를 4월 7일까지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제출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합격자 발표는 5월 9일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학생 진로 설정에 도움되길"

전주대, 도내 우수기업 모니터링단 2기 발대식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는 지난 24일 스타센터 244호에서 도내 우수기업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기업탐방, 채용설명회 등 지역 내 우수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구축 및 인질의 취업률 제고 목적으로 출범했다. 이에 도내 우수기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기업 홍보자료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박우진(기계시스템공학과 4년) 학생은 "기업탐방,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바로 알고 도내 청년들을 위해

브이로그, 카드뉴스 제작 등 정보전달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상행 센터장은 "지역 우수기업을 알리고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내 우수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구축 및 학생 취업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와우플래닛, 협약 체결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계 K-POP 학부, 실용음악학부는 지난 24일 서울 와우플래닛 본사에서 콘텐츠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인 와우플래닛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부현 교수(K-컬처테크융합원 원장), K-POP학부 신연아 학부장과 실용음악학부 지영수 학부장이 참석하고, 와우플래닛에서는 김메니 대표, 김영근 이사, 정기영 크리에이터 매니저먼트팀장 등이 함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음악 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및 창작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청년창작가 및 신진창작가 지속 발굴과 양성을 통한 인적교류, 음악 콘텐츠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 보유 네트워크 공동 활용, 기타 유망 콘텐츠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학 실용음악학부는 작곡, 보컬, 연주, 뮤직프로덕션, 프로듀서,날뮤직 등 총 5개 전공의 교육과정을 통해 현대 대중음악 흐름에 부응하는 세련된 감각과 창의력을 갖춘 실용음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 K-POP 학부는 전·현직 트레이너 출신으로 구성된 교수진들이 대중 예술가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시장을 이해하는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콘텐츠 플랫폼 스타트업인 와우플래닛은 일반인 및 기성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미래의 대작에 투자 가능한 서포터가 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현세 작가, 세종대 환경완 교수와 같은 웹툰 분야의 대표 멘토와 한은태 이승환 교수(이소라비림아분다), 호원대 신연아 교수, AVEC 뮤직 프로듀서진 등 음악 분야의 대표 멘토들이 함께해 와우플래닛을 통해 창작되는 아이디어를 멘토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4일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ECO융합섬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석대, ECO융합섬유연구원과 융복합 섬유산업 공동연구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4일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ECO융합섬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석홍 진천캠퍼스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정희석 학교법인 우석학원 사무국장 겸 산학협력부단장, 박미라 탄소기반 에너지 나노소재융합연구소장, 김경성 산학협력실장, ECO융합섬유연구원에 있는 서민강 원장, 박용완 연구개발본부장 오미나 행정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탄소기반 에너지 나노소재융합연구소를 중심으로 ECO융합섬유연구원과 △산학연 협력에 관한 기술 및 경영 공동, 공동연구 △인력, 시설 설비의 공동 활용 △교원의 산업계 현장 연수 △세미나 및 특강 공동 개최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 △산업계 공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01년 창립된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섬유와 패션 분야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서부터 사업화 지원에 이르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군사학과 9기 신입생 제복 착용식

우석대학교 군사학과가 9기 신입생에 대한 제복 착용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24일 본관 5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남천현 총장과 해군본부 정책연구관 유병주 제독, 군사학과 교수진,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방석현(군사학과 1년) 학생 외 40명은 학생 규율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미래 군 장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군사학과는 매년 3월 신입생 제복 착용식을 통해 학과의 소속감과 단결심을 함양하고 있다. 남천현 총장은 "예비 장교 후보생으로서 국가안보와 미래 발전의 주역이 된다는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학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반려동물 라이프케어 특화도시 도약 노력"

전북 반려동물산업 추진단 공식 발족

전북도 반려동물산업 추진단이 공식 발족했다.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수당에서 추진단 발족식과 함께 산학연관 역할 논의 및 의견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대 지역혁신센터 채수찬 센터장과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공동 추진단장으로 위촉하고, 4개 시·군과 대학, 기업 등 23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추진 위원들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국가사업 발굴 및 기업유치 등에 관한 역할 및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장 수여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의 동향 파악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 발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반려동물 산업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지자체가 함께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이 발빠르게 움직여 이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채수찬 센터장은 "반려동물 산업은 미개척 분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추진단에서 산학연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라북도가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